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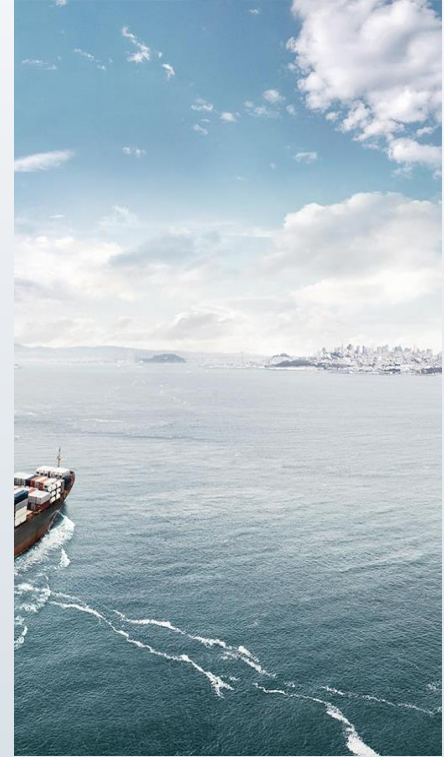


# STL MARKET REPORT

## Weekly Focus No.153

**Updated June 13, 2017**

The STL Market Report covers major issues affecting the world S&P market and provides an outlook for the market developments. The report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key developments impacting S&P market trends.



### Contents

Market Overview	1
Issue & Trend	4
Bulk Carrier	10
- BC Sales Report	
Tankers	14
- Tanker & Container Sales Report	
Demolition	18
Key Indicators	21
Useful Information	23
Contact Information	24

\*\* 본 자료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내, 외신 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I . MARKET OVERVIEW

---

### 1. 신조선 시장동향

폴라리스쉬핑이 기존의 개조 VLOC 를 신조선으로 교체하기 위한 선박 발주를 잇달아 내고 있다. 지난 5 월 31 일 현대중공업과 325,000 DWT 급 초대형 철광석 운반선 3 척의 신조계약을 체결했다고 7 일 밝혔다. 선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7,500 만 달러 수준으로 예상된다.

폴라리스쉬핑은 선박 10 척 교체를 목표로 2014 년 2 척, 2015 년 3 척, 지난해 1 척 등 이미 6 척을 인도받았다. 이달 22 일 1 척을 인도받을 계획이고, 나머지 3 척은 이번에 발주했다. 신조선 10 척 모두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있다.

대한해운이 중국 CHENGXI YARD 에 81,200DWT 캄사르막스 2 척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가는 척당 2,480 만 달러 수준으로 2020 년 7 월까지 인도 예정이다.

### 2. 벌크선 시장동향

2~3 주간 급락하던 BDI 가 약반등을 보였고, 중고선 거래도 늘어난 모습이다. 선가는 아직까지 보험세, 또는 약하락세를 보이는 선형도 있다. 여름철 비수기에 접어들어서도 지금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노후선 교체의 일환으로 폴라리스쉬핑이 "TRF CHARLESTON" (208,925 DWT BLT 2017 CIC JIANGSU)를 4,620 만 달러에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TSUNEISHI ZHOUSHAN(TSUNEISHI 그룹 중국법인)에서 건조된 포스트파나막스 "TEN JO MARU" (98,681 DWT BLT 2011)가 대만 U-MING 에 1,900 만 달러에 매각되었다.

캄사르막스 "OCEAN PHOENIX I" (82,471 DWT BLT 2007 TSUNEISHI)는 1,350 만 달러에 매각되었다. 동선령의 파나막스 "CORAL GARNET" (75,674 DWT BLT 2007 SANOYAS)가 1,300 만 달러에 매각되면서 두 선형의 선가차이가 줄어든 모습이다.

핸디사이즈 부문에서 "VOGE EMMA" & "VOGE MIA" (36,839 DWT BLT 2011 HYUNDAI MIPO), 두 척이 2,190 만 달러에 일괄 매각되었다. 이보다 좀더 작은 사이즈의 VALENTE ANGEL(28,534 DWT / 2007

## I . MARKET OVERVIEW

---

BLT SHIMANAMI JAPAN)은 700 만 달러 수준으로 매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VALENTE ANGEL 의 동형선인 CAPE KNOX(28,442DWT, BLT 2006 IMABARI)이 한달전쯤 710 만 달러에 매각된 바 있다.

### 3. 탱커선 시장동향

탱커선 운임시장은 큰 변화없이 보험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고선가에는 약간의 개선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번주에도 빈티지 VLCC 한척이 매각되었다. "DS COMMANDER" (311,168 DWT BLT 1999 HHI)이 홍콩의 WINSON OIL 에게 1,650 만 달러에 매각되었다.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중인 159,000DWT 수에즈막스 탱커선(2017 년 7 월 인도예정)이 리세일 되었다. 거래 선가는 척당 5,700 만 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 월에 매각된 MT "AEGEAN FIGHTER"/"AEGEAN MIRACLE" (158,871 DWT/DELIVERY 2017 FROM HYUNDAI IN KOREA) 이 5,500 만 달러에 거래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선가가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빈티지 수에즈막스 "GENER8 HORN" (159,475 DWT BLT 1999 DAEWOO)이 1,000 만 달러에, "FRONT BRABANT" (153,152 DWT BLT 1998 HHI)DL 900 만달러에 매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 4. 해체선 시장동향

해체시장의 선가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예년과는 달리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의 예산안발표 이후 로컬해체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파키스탄의 경우 조세비율이 증가하면서 ldt 당 \$10 정도의 선가하락을 가져왔고, 방글라데시의 경우 예산안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ldt 당 \$40 정도의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 해체조선소 연합과 방글라데시 정부가 세금인상율을 놓고 협상 중이며, 협상결과가 긍정적일 경우에는 철강재가격 상승에 따라 해체선가도 상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러 불확실성의 확대와 함께 선주들이 선박 매각을 보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여름철 비수기가 예년보다 빨리 시작되는 분위기이다. 그나마 긍정적인 소식은 철강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 I . MARKET OVERVIEW

---

터키도 철강재가격이 상승하면서 해체선가도 동반상승하고 있다. 지중해에 있는 선박의 경우 공선상태로 수에즈를 통과하여 sub-conti 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터키로 매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해체선 지원제도가 올해 9 월을 기한으로 중단된다는 소식이다. 이에 따라 많은 중국국적 선박들이 자국내 해체선 매각을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9 월 이후부터는 중국의 해체조선소들도 해체선박 매입을 위해 다시 국제시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II . ISSUE & TREND

### 1. 벨기에 아스트리드 공주, 경제사절단과 함께 부산항만공사 방문



▲ 벨기에 아스트리드 공주(HRH Princess Astrid)

벨기에 국왕의 특사자격으로 12일부터 4박 5일 간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아스트리드 공주가 이끄는 경제사절단이 마지막날인 16일 오후 3시 20분 부산항만공사(BPA)를 공식 방문한다.

BPA는 이번 경제사절단 방문에 맞춰 벨기에의 대표항만인 앤트워프항, 성장가능성이 주목받는 지브뤼게항과 MOU를 체결해 상호협력관계를 다져갈 계획이다.

MOU의 주요내용은 전문가 교류 및 공동 연구 수행과 터미널 관리, 운영 분야의 전문기술 교환, 각 기관 직원의 파견 교육 추진, 항만 간 물동량 증대를 위한 교역 활성화, 항만 환경오염 관리에 대한 연구 수행, 크루즈 관광분야에 관한 협력 등 6개 항목이다.

이번 항만공사 방문에는 아스트리드 공주를 포함한 피터 드크렘 대외통상장관, 김형진 주벨기에 한국대사, 빈센트 드 사들레르 지브뤼게항 부사장, 프랭크 히르킨스 앤트워프항 대사, 벨기에 주요기업의 임직원 등 50여명이 내방할 예정이다.

우예중사장은 “벨기에 아스트리드 공주 일행의 부산항만공사 방문이 부산항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 한국과 벨기에 양국의 우호 및 신뢰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스트리드 공주가 이끄는 260여명 규모의 사절단은 12일 서울방문을 시작으로 오는 16일 까지 5일간 B2B 회의, 워크숍, 세미나 등 행사 참석을 위해 국내에 머무른다.

## II . ISSUE & TREND

### 2. 표류하는 '24 억달러 선박펀드'

총 24 억달러 규모인 선박펀드 가동과 해양플랜트 설계회사 설립 등 조선·해운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이 장기 표류하고 있다. 시장과 소통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시행 일정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8 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4 월 현대상선과 초대형 유조선(VLCC) 10 척(옵션 포함)의 건조의향서(LOI)를 맺었지만 본계약 체결이 무기한 연기됐다. 현대상선이 정부 선박신조프로그램(선박펀드)의 도움을 받아 발주하기로 했지만 펀드 구성에 보증을 서기로 한 무역보험공사가 보증 조건에 반대하면서 펀드를 활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선박펀드에 대한 보증 조건을 놓고 무보와 금융당국 간 이견이 생기면서 대우조선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당초 다음달로 예정된 본계약 체결이 최악의 경우 해를 넘길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해양수산부는 작년 10 월 총 24 억달러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해 해운사의 대형 선박 건조를 지원하고 국내 조선사에도 일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무보는 펀드의 60%가량인 선순위대출에 대해 보증을 서기로 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참여 기관 간에 충분한 사전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금융위와 산업은행, 현대상선 측은 선박펀드 지원을 매개로 대우조선에 VLCC 10 척의 건조 자금(약 9,000 억원)을 다섯 차례에 걸쳐 20%씩 순차적으로 나눠주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 관행대로 최종 인도 시점에 건조 대금을 몰아주면 건조 도중에 대우조선의 현금흐름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보는 관행대로 △인도 전 40% △인도 후 60%를 지급하는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선박을 인도한 뒤 보증을 서는 게 더 안전하기 때문이다. 무보 관계자는 "내부 규정상 인도 전 선수금에 대한 보증은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작년 선박펀드를 구성할 때부터 이 같은 조건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선박펀드 가동이 차질을 빚으면서 펀드를 통해 선박 건조를 추진하던 폴라리스шип, KSS 해운 등에도 비상이 걸렸다. 금융위는 무보의 건의를 받아들여 선박펀드 구조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II . ISSUE & TREND

올해 3월 말로 예정됐던 해양플랜트 설계회사 설립도 무기한 연기됐다. 당초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엔지니어링, GS건설 등 5개 사는 고부가가치 설계시장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권유로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대우조선이 해양플랜트 부문을 축소하기로 하고 출자회사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추진 주체가 거의 사라진 상태다.

### 3. 3대 해운 얼라이언스 체제 공고화...한국 해운업 영향은

최근 4대 체제에서 3대로 재편된 글로벌 해운 얼라이언스 체제는 앞으로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대 얼라이언스의 지배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국내 해운업계도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

9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앞으로 컨테이너선 시장은 선사 간의 인수합병(M&A)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얼라이언스 멤버가 10개에서 7~8개로 줄어들 뿐 3대 얼라이언스 체제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코스코와 OOCL, 에버그린과 양밍 등 선사 간의 M&A 이슈가 남아있지만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이 공정경쟁 유지를 이유로 현재 얼라이언스 규모를 초과하는 새로운 얼라이언스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얼라이언스는 여러차례 재편을 겪어왔다. 1995년 말 최초 얼라이언스인 글로벌(Global) 얼라이언스(OOCL, MOL, APL, Nedlloyd)가 설립된 이후 20여년간 글로벌 선사들은 서비스의 범위 확장과 비용절감 위해 얼라이언스 결성 및 해체를 꾸준히 진행했다.

지난 4월에는 기존 해운 얼라이언스(2M·O3·G6·CKYHE)가 2M(머스크·MSC)과 오션(CMA CGM·코스코·에버그린·OOCL), 디 얼라이언스(양밍·하팍로이드·NYK·MOL·케이라인) 등 3대 체제로 재편됐다. 다만 하팍로이드는 머스크와 합병했고 일본 3대 선사인 NYK·MOL·케이라인은 다음달 통합법인을 설립한다.

## II . ISSUE & TREND

얼라이언스 재편 과정에서 비용우위를 위한 초대형선박 발주와 무한 경쟁이 지속되면서 규모도 거대해졌다. 2M, 오션, 디 얼라이언스는 주요 항로에서 9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할 만큼 세계 해운시장을 주도한다.

주요 항로별 얼라이언스의 시장점유율은 아시아-유럽항로에서 2M 은 34%, 오션 33%, 디 얼라이언스 30%로 총 97%를, 아시아-북미항로에서는 2M 17%, 오션 35%, 디 얼라이언스 39% 등 총 91%를 기록하고 있다.

전형진 KMI 센터장은 "선사들이 얼라이언스를 결성하는 이유는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해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시장진입 장벽을 높이는 데 있다"며 "컨테이너선 시장, 특히 기간항로에 있어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하는 경쟁과 협력체제가 매우 오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선사들 간 M&A 도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얼라이언스 체제는 큰 변화 없이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양대 원양선사인 현대상선과 SM 상선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질 수 밖에 없다.

현대상선은 2M 과 전략적 협력을 맺었지만 2M 이 대형 선박 발주를 제한한데다 경영정상화 과정 중인만큼 재무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곧 과거와 같이 선박 발주를 통한 성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다.

SM 상선의 경우는 컨테이너선 시장에 이제 막 진출하는 단계다. 당분간 중견선사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우오현 SM 그룹 회장은 최근 "이스라엘, 대만 등의 선사들과 손을 잡겠다"고 밝히는 등 얼라이언스 가입의지를 드러냈지만 단기간에 이루기란 쉽지 않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얼라이언스 없이 독자노선을 운영하는 선사들도 많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의 해운강국 목표를 위해서는 가입이 필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얼라이언스 가입이 생존의 문제는 아니다. 운임 경쟁력, 소석률, 서비스 등 성장의 문제다"며 "얼라이언스 등 성장에 대한 논의 보다는 금융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 II . ISSUE & TREND

### 4. 국제 운항 中國적선, 1 만 DWT 이상 1,345 척...31.21%

#### 점유

중국의 해운 빅데이터(BIG DATA) 분석업체 ELANE 이 최근 전 세계 운항 중인 선대현황과 중국선주의 선대현황, 중국수역에서 운항 중인 선박의 종류와 선박국적에 대한 통계자료를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했다. 2003 년 북경에 설립된 ELANE DATA 기술 주식회사는 현재 중국내 10 개 지사와 유럽, 미국에 300 명 이상의 인력을 구축하고 BIG DATA 기반 해운·원자재·항만·물류·선박·금융 영역에서 고객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전 세계 선박의 운항기록을 분석한 결과 국제 운항을 하고 있는 선박은 79,753 척이다. 이 중 Dry Bulk 선이 10,472 척, General Cargo 선이 14,124 척, Container 선이 5,064 척, Oil Tanker 선이 7,201 척으로 이 4 종의 주력선종이 전체 선박수량의 46.21%를 점유하고 있다.

전 세계 국제 운항 선박 중 규모가 1 만 DWT 이상 선박은 25,714 척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선종별 수량과 점유율은 Dry Bulk 선이 9,992 척으로 38.86%, Container 선이 4,394 척으로 17.09%, Oil Tanker 선이 3,384 척으로 13.1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 세계 국제 운항 선박의 선령별 분석을 보면 선령 0~4 년이 12,848 척으로 16.11%, 5~14 년이 28,645 척으로 35.92%를 점유했다. 이 중 선령이 가장 젊은 선종은 Dry Bulk 로 0~4 년이 25.04%를 점유하고 있고, 노후선박이 가장 많은 선종은 General Cargo 로 선령 15 년 이상 선박비중이 59.22%를 점유하고 있다.

전 세계 운항기록은 내항 선박을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ELANE 은 4 월 1 일~30 일까지의 자사 시스템에 포착된 선박위치를 분석해 자료를 보강했다. 통계결과, 한 달간 전 세계 선박운항 차수는 37.89 만 항차이고, 이 중 화물선(Dry Bulk, General Cargo, Container)이 11.9 만항차로 31.45%를 점유, Oil Tanker 가 1.94 만항차로 5.13%를 점유, 포획선(어선)이 7.62 만항차로 20.11%를 점유했고, 그 외 각종 선종의 합계가 43.31%를 점유했다.

AIS 정보가 Tonnage 정보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ELANE 은 선박의 크기를 가늠해 선박의 크기 분포를 통계했다. AIS 분석결과 길이가 160M+ 이상의 선박은 약 3.06 만항차로 AIS 선박의 8.09%를 점유했고, 길이가 80M-이하와 불명확한 선박의 합계가 약 30.89 만항차로 AIS 선박의 81.52%를 점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 세계 선박의 운항기록을 분석한 결과, 국제 운항을 하고 있는 중국국적 선박은 4,309 척이다.

## II . ISSUE & TREND

이중 1 만 DWT 이상 선박이 1,345 척으로 31.21%를 점유하고 있고, 이중 1,129 척인 83.95%가 중국선급에 입급돼 있다.

중국국적 선박 중 Dry Bulk 선이 861 척으로 19.98%, General Cargo 선이 598 척으로 13.88%, Container 선이 202 척으로 4.69%, Oil Tanker 선이 362 척으로 8.4%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 운항 중인 중국국적 선박의 선령별 분석을 보면 선령 0~4 년이 984 척, 5~14 년이 1,768 척, 15~24 년이 630 척, 25 년 이상이 927 척으로 집계됐다. 이중 선령이 가장 젊은 선종은 Dry Bulk 로 0~4 년이 19.98%를 점유하고 있고, 노후선박이 가장 많은 선종은 General Cargo 로 선령 15 년 이상 선박비중이 62.37%를 점유하고 있다.

편의치적국 제도로 인해 외국국적 선박임에도 실제로는 중국선주가 관리하는 선박들이 있다. ELANE 이 이점을 고려해 중국선사가 경영관리하고 있는 선박을 포함해 조사한 결과, 중국선주의 선박은 6,103 척으로 집계됐다. 이중 1 만 DWT 이상 선박은 2,517 척이며, 그중 Dry Bulk 선이 1,431 척, Container 선이 447 척, General Cargo 선이 255 척, Oil Tanker 선이 201 척, Chemical Tanker 선이 85 척으로 전체의 41.24%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LANE 이 5 월 2 일~8 일 1 주일간 중국수역에서 운항한 선박의 AIS 위치를 분석·통계한 결과 총 12.17 만항차의 운항이 이루어졌다. 이중 화물선(Dry Bulk, General Cargo, Container)이 6.57 만항차로 53.96%를 점유, Oil Tanker 가 4,968 항차로 4.08%를 점유, 포획선(어선)이 1.43 만항차로 11.74%를 점유했고, 그 외 각종 선종의 합계가 2.83 만항차로 23.25%를 점유했다. 5 월 2 일~8 일 1 주일간 중국수역에서 운항한 선박들의 국적을 분석한 결과, 중국국적 선박이 79.96%, 홍콩국적 선박이 1.16%, 파나마 국적선박이 1.04%, 국적불명 선박이 11.91%를 점유했다. (국적불명 선박은 대부분 규정대로 MMSI 를 사용하지 않는 어선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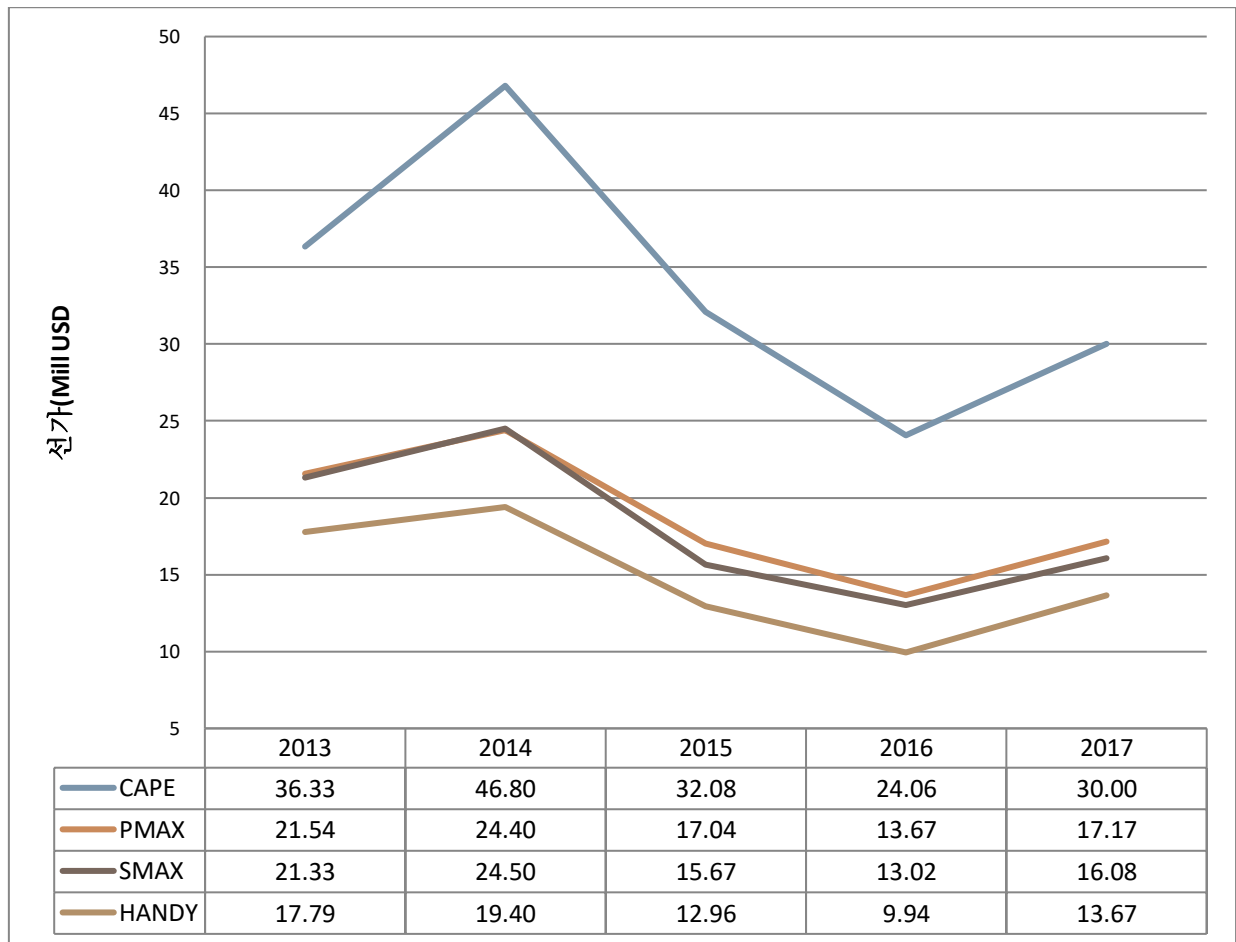
### III. BULK CARRI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연평균 선가	2013	2014	2015	2016	2017
Capesize 180K	36.33	46.80	32.08	24.06	30.00
	6%	29%	-31%	-25%	25%
Panamax 76K	21.54	24.40	17.04	13.67	17.17
	-2%	13%	-30%	-20%	26%
Supramax 56K	21.33	24.50	15.67	13.02	16.08
	-4%	15%	-36%	-17%	24%
Handysize 32K	17.79	19.40	12.96	9.94	13.67
	2%	9%	-33%	-23%	38%

#### □ BC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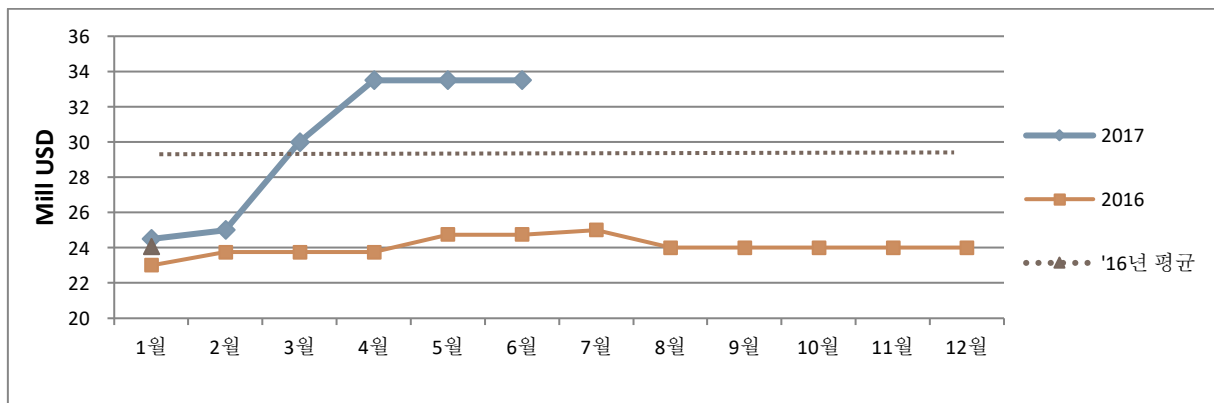




### III .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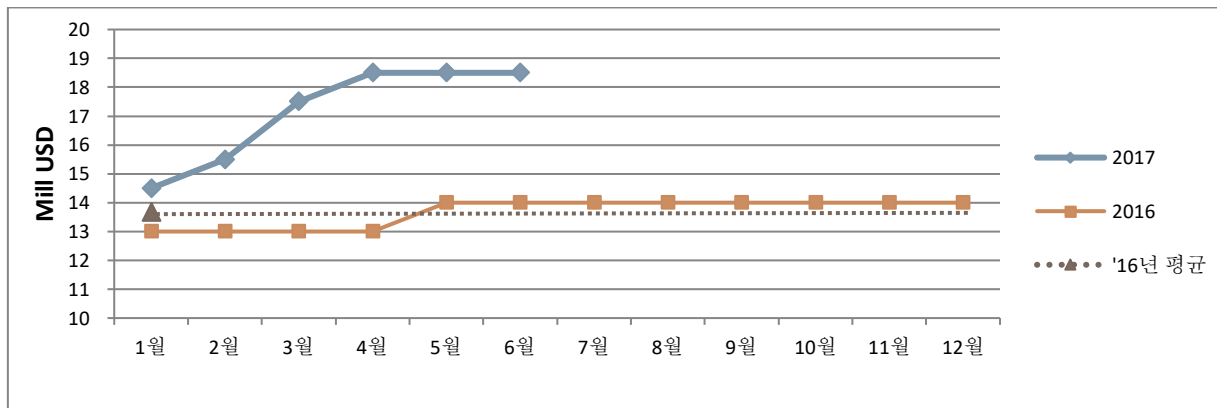
구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평균	
2017	CAPE 180K	선가	24.50	25.00	30.00	33.50	33.50	33.50	30.0
		전월대비	2.1%	2.0%	20.0%	11.7%	0.0%	0.0%	-
		전년대비	6.5%	5.3%	26.3%	41.1%	35.4%	35.4%	24.7%
	PMAx 76k	선가	14.50	15.50	17.50	18.50	18.50	18.50	17.2
		전월대비	3.6%	6.9%	12.9%	5.7%	0.0%	0.0%	-
		전년대비	11.5%	19.2%	34.6%	42.3%	32.1%	32.1%	25.6%
	SMAx 56k	선가	14.50	15.00	16.00	17.00	17.00	17.00	16.1
		전월대비	3.6%	3.4%	6.7%	6.3%	0.0%	0.0%	-
		전년대비	11.5%	25.0%	33.3%	41.7%	30.8%	30.8%	23.5%
	HANDY 32k	선가	13.00	13.50	13.50	14.00	14.00	14.00	13.7
		전월대비	8.3%	3.8%	0.0%	3.7%	0.0%	0.0%	-
		전년대비	36.8%	42.1%	42.1%	47.4%	55.6%	55.6%	37.5%
2016	CAPE	23.00	23.75	23.75	23.75	24.75	24.75	24.1	
	PMAx	13.00	13.00	13.00	13.00	14.00	14.00	13.7	
	SMAx	13.00	12.00	12.00	12.00	13.00	13.00	13.0	
	HANDY	9.50	9.50	9.50	9.50	9.00	9.00	9.9	

#### □ 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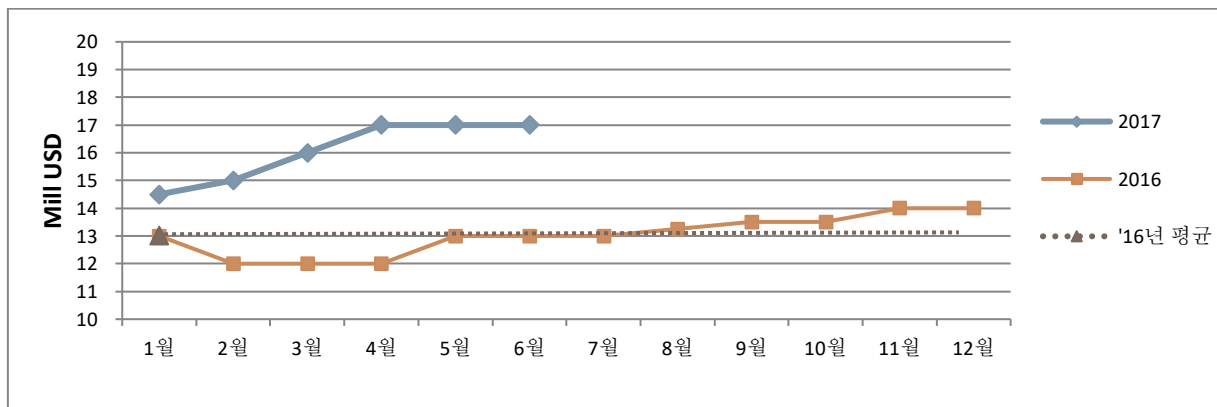


### III .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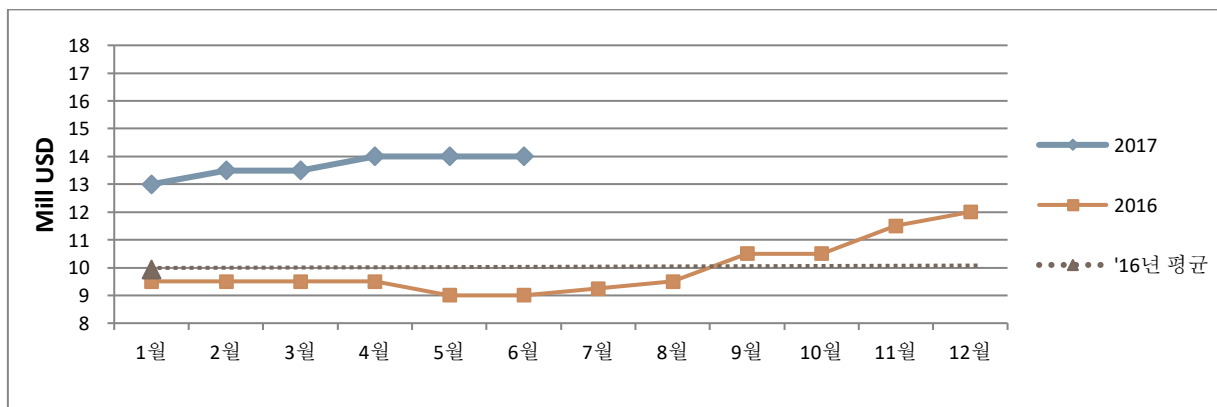
#### □ Panamax



#### □ Supramax



#### □ Handy



### III . BULK CARRIER

#### III-1. Bulk Carrier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BLT	YARD	M/E	GEAR	PRICE	REMARKS
VLO C	TRF CHARLESTON	208,925	2017	CHINA	B&W		46.2	S. Korean buyre (Polaris)
BC	TEN JO MARU	98,000	2011	CHINA(J PN)	B&W		19	Taiwanese buyers (U-Ming)
BC	OCEAN PHOENIX I	82,417	2007	JAPAN	B&W		13.5	undisclosed buyer
BC	CORAL GARNET	75,674	2007	JAPAN	B&W		13	undisclosed buyer
BC	PRIVAEGEAN	57,000	2011	CHINA	B&W	C 4x30t	10.75	Greek buyer
BC	BW INDIGO	56,121	2011	CHINA(J PN)	B&W	C 4x30t	15.1	undisclosed buyer
BC	UNION RANGER	45,621	1995	JAPAN	B&W	C 4x30t	3.5	Middle Eastern buyer
BC	VOGE MIA	37,000	2012	KOREA	B&W	C 4x30.5t	10.95	Norwegian buyer (Fearnleys Finans)
BC	VOGE EMMA	37,000	2012	KOREA	B&W	C 4x30.5t	10.95	
BC	JIA TAI	35,000	2011	CHINA	B&W	C 4x30t	6.8	Chinese buyer
BC	PIONEER SKIPPER	33,334	2010	KOREA	B&W	C 4x30t	8.8	Greek buyer, bank driven sale
BC	PIONEER SPIRIT	33,261	2009	KOREA	B&W	C 4x30t	8.2	
BC	VALENTE ANGEL	28,534	2007	JAPAN	B&W	C 4x30.5t	7	Greek buyer
SD	SUNRISE MIYAJIMA	19,127	2007	JAPAN	MAK	C 3x30.5t	6.2	Turkish bu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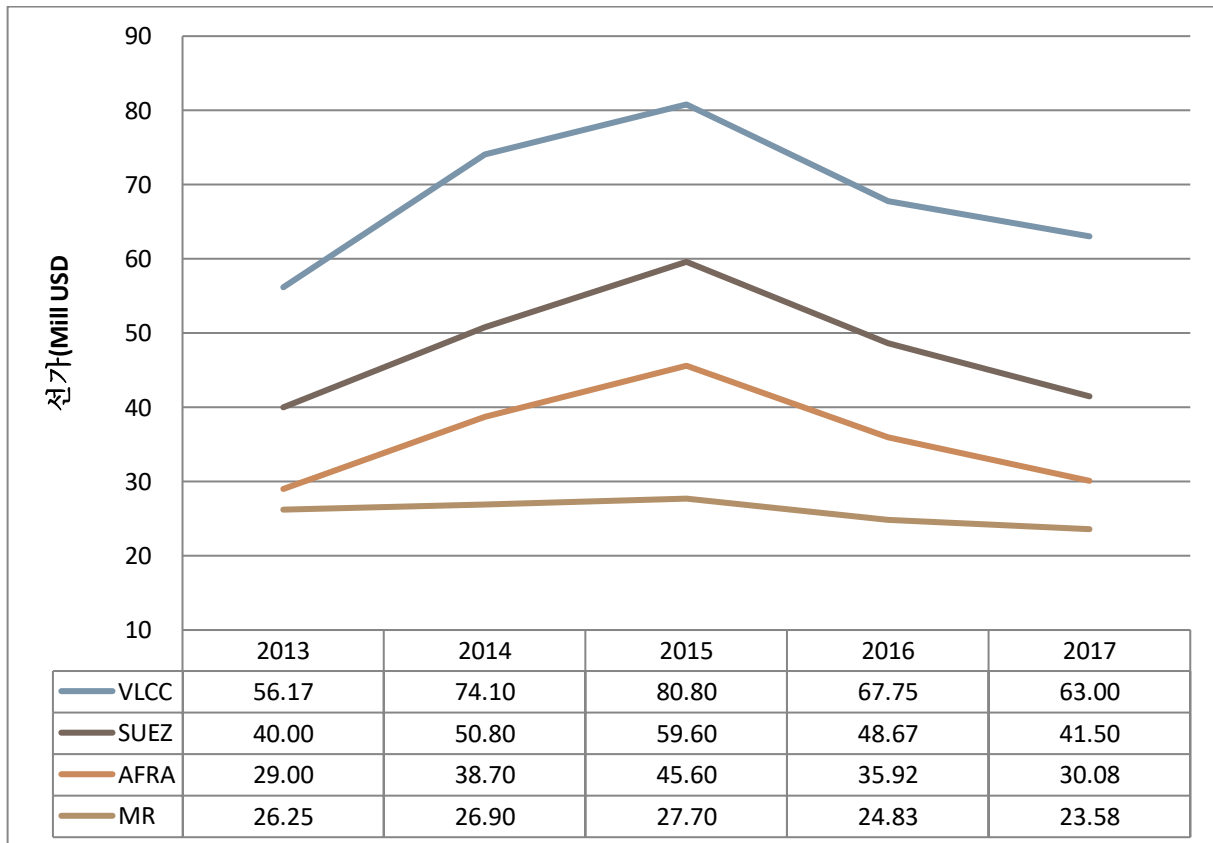
## IV. TANK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VLCC 310K	56.17	74.10	80.80	67.75	63.00
	-10%	32%	9%	-16%	-7.0%
Suezmax 160K	40.00	50.80	59.60	48.67	41.50
	-10%	27%	17%	-18%	-14.7%
Aframax 105K	29.00	38.70	45.60	35.92	30.08
	-5%	33%	18%	-21%	-16.2%
MR 47K	26.25	26.90	27.70	24.83	23.58
	5%	2%	3%	-10.3%	-5.0%
Chemical Tanker IMO II 13K	11.94	13.00	12.60	13.92	12.50
	13%	9%	-3%	10.4%	-10.2%

### □ TANKER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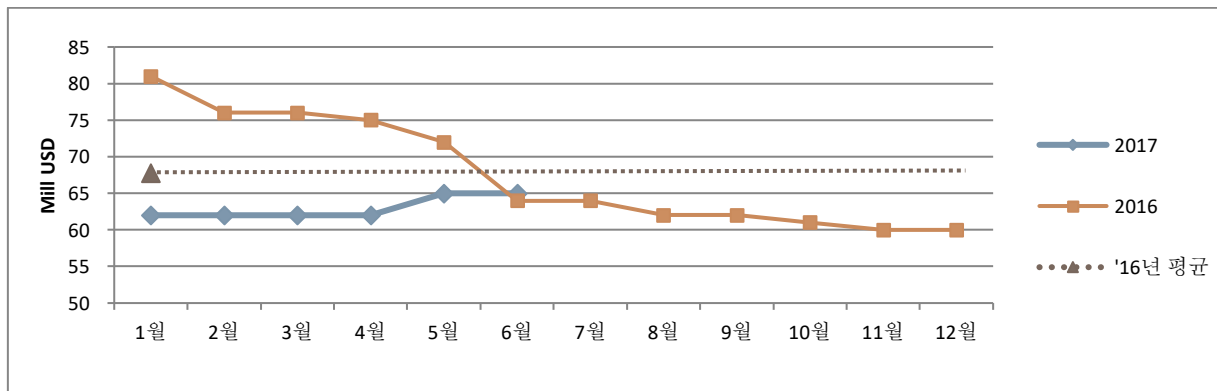




## IV. TANKER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평균	
2017	VLCC 310K	선가	62.00	62.00	62.00	62.00	65.00	65.00	63.0
		전월대비	3.3%	0.0%	0.0%	0.0%	4.8%	0.0%	-
		전년대비	-23.5%	-18.4%	-18.4%	-17.3%	-9.7%	1.6%	-7.0%
	SUEZ 160K	선가	41.00	41.00	40.00	42.00	42.50	42.50	41.5
		전월대비	2.5%	0.0%	-2.4%	5.0%	1.2%	0.0%	-
		전년대비	-30.5%	-28.1%	-25.2%	-20.0%	-19.0%	-15.0%	-14.7%
	AFRA 105K	선가	30.00	30.00	28.50	30.00	31.00	31.00	30.1
		전월대비	3.4%	0.0%	-5.0%	5.3%	3.3%	0.0%	-
		전년대비	-33.3%	-25.0%	-28.8%	-25.0%	-20.5%	-16.2%	-16.2%
	MR 47K	선가	22.50	22.50	22.50	24.00	25.00	25.00	23.6
		전월대비	2.3%	0.0%	0.0%	6.7%	4.2%	0.0%	-
		전년대비	-25.0%	-18.2%	-18.2%	-12.7%	-5.7%	4.2%	-5.0%
CHEM IMO2 13K	선가	12.25	12.00	12.75	12.50	12.75	12.75	12.5	
	전월대비	-5.8%	-2.0%	6.3%	-2.0%	2.0%	0.0%	-	
	전년대비	-12.5%	-15.8%	-10.5%	-12.3%	-10.5%	-8.9%	-10.2%	
2016	VLCC	81.00	76.00	76.00	75.00	72.00	64.00	67.8	
	SUEZ	59.00	57.00	53.50	52.50	52.50	50.00	48.7	
	AFRA	45.00	40.00	40.00	40.00	39.00	37.00	35.9	
	MR	30.00	27.50	27.50	27.50	26.50	24.00	24.8	
	CHEM	81.00	76.00	76.00	75.00	72.00	64.00	6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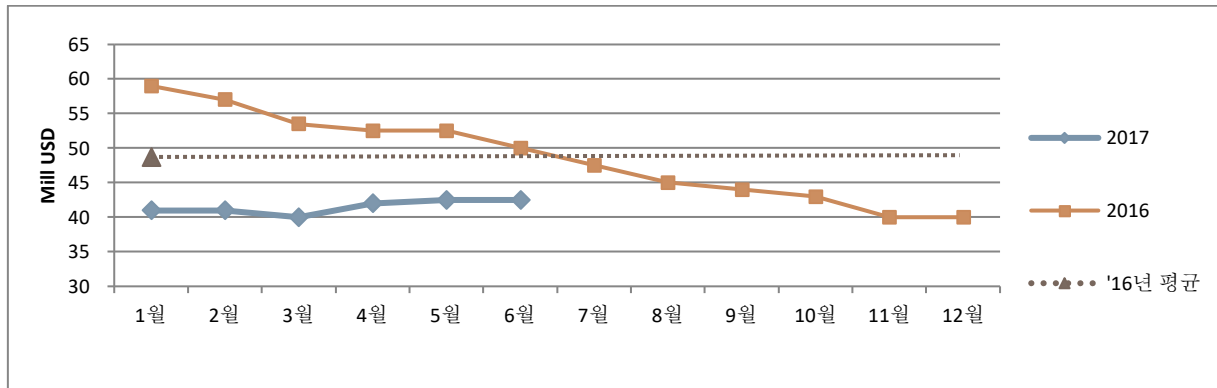
### VLCC-310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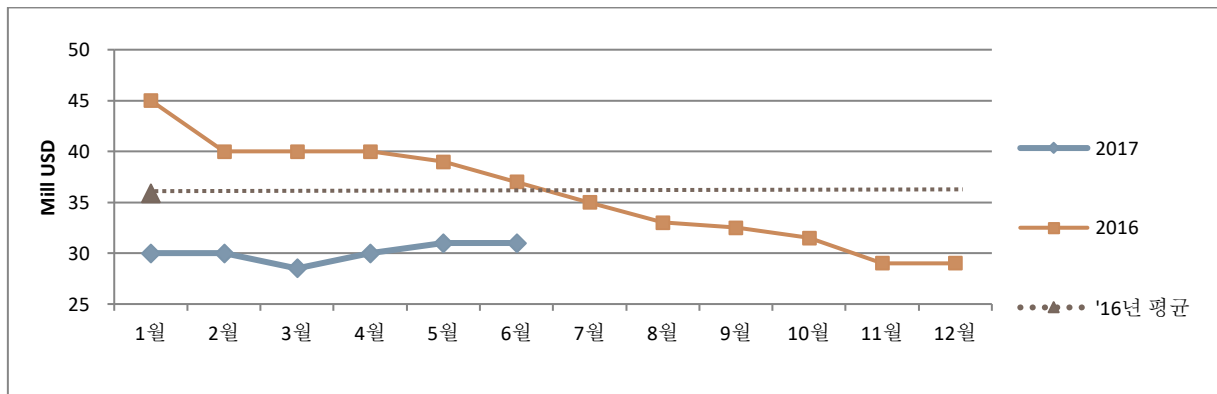


## IV.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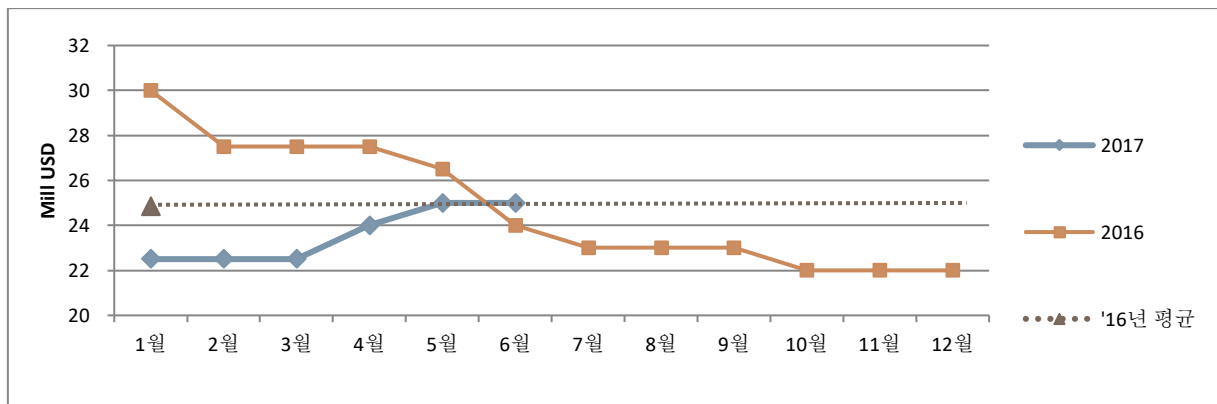
### □ SUEZMAX-160K



### □ AFRAMAX-105K



### □ MR-47K





IV. TANKER

IV-1. Tanker Sales Reported

1) TANKER

TYPE	VESSEL	DWT	BLT	YARD	M/E	IMO	PRICE	REMARKS
TANKER	DS COMMANDER	311,168	1999	KOREA	B&W		16.5	Hong Kong buyers (Winson Oil)
TANKER	GENER8 HORN	159,539	1999	KOREA	B&W		10	Undisclosed buyer
TANKER	HYUNDAI SAMHO S852/ S853	159,000	2017	KOREA	B&W		57.5	Greek buyers (Delta Tankers)
TANKER	FRONT BRABANT	153,152	1998	KOREA	B&W		9	undisclosed buyer
TANKER	RUBY EXPRESS	106,516	2004	JAPAN	B&W		12.3	undisclosed buyer
TANKER	SANTRINA	36,457	1994	ITALY	SULZ		3.5	undisclosed buyer
CHEM	NAVIG8 SAIPH (stst)	25,000	2017	JAPAN	B&W	2&3	33.4	Chinese buyer (China Merchants Bank), incl 7y BBB with P.O.
CHEM	NAVIG8 SCEPTRUM (stst)	25,000	2017	JAPAN	B&W	2&3	33.4	
LPG	GAS EMPEROR	5,599	1994	JAPAN	MITS U		2.7	Vietnamese buyer (FGAS)
LPG	GAS ICON	5,588	1994	JAPAN	MITS U		2.7	
LPG	GAMMAGAS	4,447	1992	UK	MAK		0.9	Turkish buyers (Argaz)
LPG	LADY ELENA	4,288	1998	JAPAN	MITS U		3.5	S. Korean buyer
LPG	ANETTE KOSAN	3,844	2001	JAPAN	MITS U		5	Indonesian buyer
TANKER	DS COMMANDER	311,168	1999	KOREA	B&W		16.5	Hong Kong buyers (Winson Oil)
TANKER	GENER8 HORN	159,539	1999	KOREA	B&W		10	Undisclosed buyer

2) CONTAINER, REEFER, ETC

TYPE	VESSEL	DWT	BLT	YARD	M/E	CAPA	UNIT	PRICE	REMARKS
CONT	AROSIA	38600	2006	POLAND	B&W	2711	TEU	10.2	Brazilian buyers
CONT	STADT DRESDEN	37937	2006	GERMANY	B&W	2742	TEU	7.85	German buyers (MP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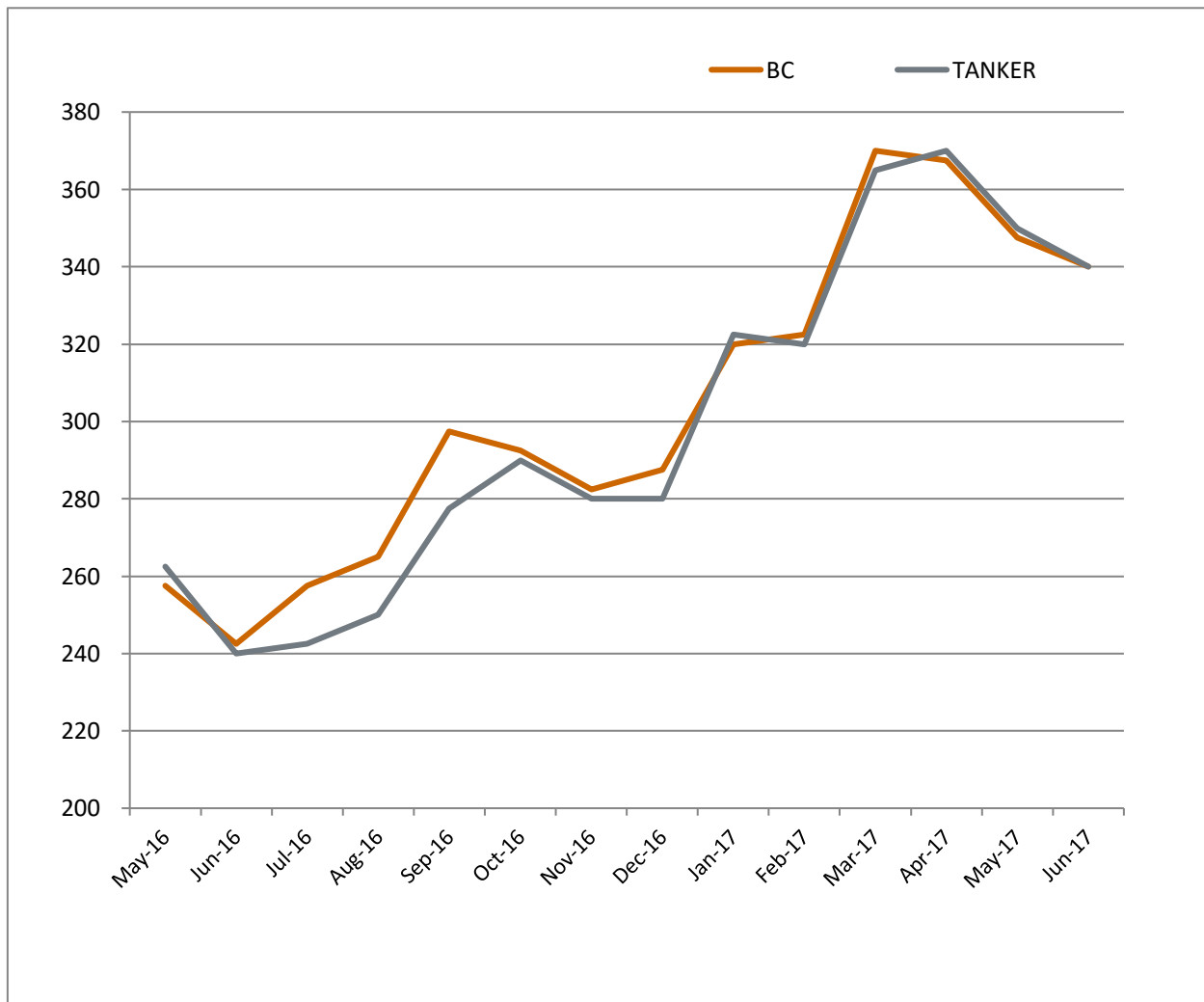


## V . DEMOLITION

### 1) 선가

해체선가 (US\$/LDT)	2015 평균		2016 평균		2017 평균		2016 년 6 월	2017 년 6 월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월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TANKER	341.04	-28.2%	265.63	-22.1%	344.58	29.7%	240.00	340.00	-2.9%	41.7%
BC	336.54	-28.2%	267.71	-20.5%	344.58	28.7%	242.50	340.00	-2.2%	40.2%

❖기준 : 인도해체선시장(USD/LDT), 증감율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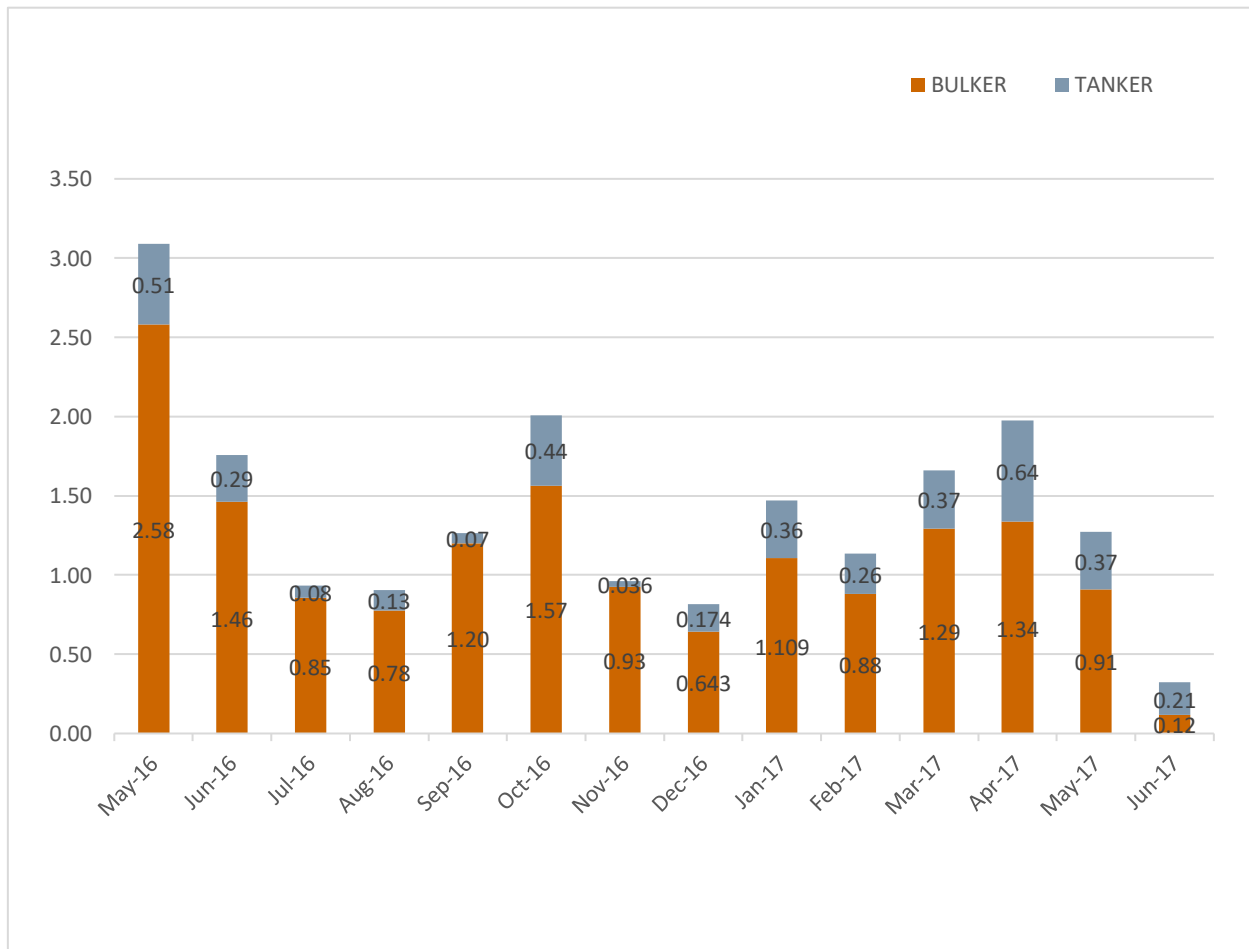


## V. DEMOLITION

### 2) 해체선누적현황

해체선 총량	2016 년		2017 년 누적			2016 년 6 월		2017 년 6 월				
	Million DWT	No.	Million DWT	누적율 (전년대비)	No.	누적율 (전년대비)	Million DWT	No.	Million DWT	증감율 (전년대비)	No.	증감율 (전년대비)
TANKER	2.86	46	2.20	76.9%	28	60.9%	0.29	3	0.21	-29.9%	2	-33.3%
BC	27.34	428	5.64	20.6%	136	31.8%	1.46	26	0.12	-92.0%	4	-84.6%

### 3) 해체선총량 (MILLION DWT)



## V . DEMOLITION

### V -1. Demolition Sales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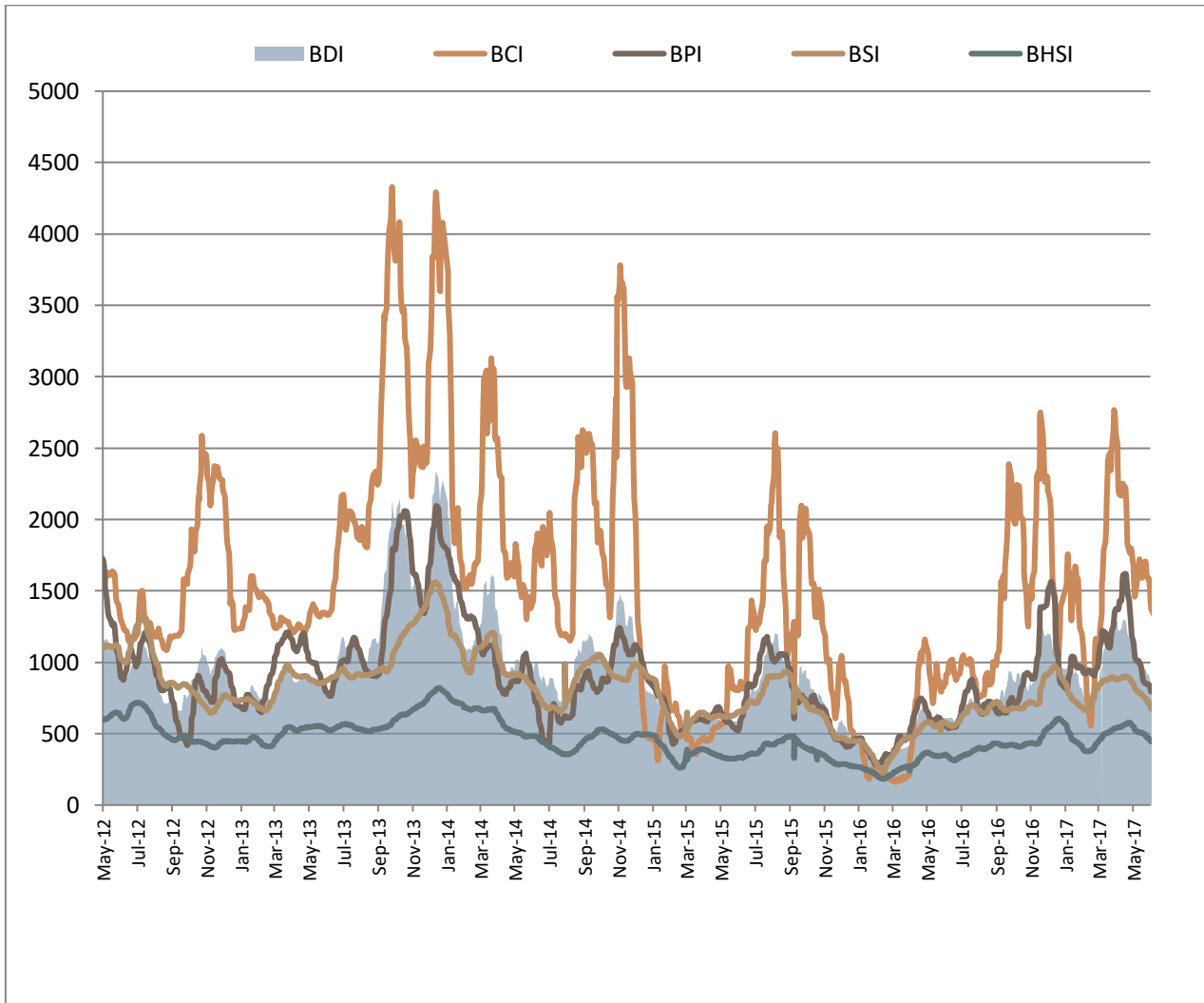
TYPE	VESSEL	DWT	LDT	BLT	YARD	M/E	PRICE	REMARKS
BC	ANTWERPEN (self discharger)	41,100	11840	1979	BELGIUM	SULZ	355	BANGLADESH
BC	PAPUAN COAST	3,249	1741	1996	CHINA	WART	341	BANGLADESH
CHEM	NO. 8 KOKAMARU (molten sulphur carrier)	2,999	1589	1991	JAPAN	HANSH	215	CHINA
CONT	HC JADE	5,110	2553	1997	CHINA	MAK	323	AS IS COLOMBO (final destination INDIA)
OBO	SKS TUGELA	109,891	18400	1997	KOREA	B&W	325	INDIA (green recycling)
OBO	ORE SOSSEGO	264,164	44260	1991	JAPAN	MITSU	338	INDIA (green recycling)
PCC	QUEEN ACE	18,777	13913	1988	JAPAN	MITSU	363	BANGLADESH



## VI. KEY INDICATORS

### 1) Baltic Index

	2017-06-09	2017-06-02	CHANGE	5 Year High	5 Year Low
BDI	849	830	19	2337	290
BCI	1438	1374	64	4329	161
BPI	813	792	21	2096	282
BSI	654	674	-20	1562	243
BHSI	425	446	-21	821	183





## VI. KEY INDICATORS

### 2) Bunker Price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Change)	Singapore		Rotterdam		Houston	
IFO380	306.50	3.00	284.50	-3.00	258.00	-26.00
IFO180	325.50	-5.50	324.50	-2.50	326.00	-35.50
MGO	442.00	-9.00	416.00	-21.50	449.00	-38.50

❖ 기준일 : 6 월 9 일 기준

### 3) Exchange Rate

구분	2017-06-09	2017-06-02	CHANGE
미국달러	1125.00	1120.40	4.60
일본엔(100)	1022.77	1005.70	17.07
유로	1259.72	1256.58	3.14
중국위안	166.21	166.26	-0.05

❖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기준



## VII. USEFUL INFORMATION

구분	행사명	일시	장소 (주최)	기타
포럼	SHIPOWNERS FORUM 2017	6.14 (수)	Onassis Cultural Centre, Athens (TradeWinds)	Returning on June 14th, 2017, the TradeWinds Shipowners Forum takes place at the Onassis Cultural Centre against a changing political backdrop and a challenging commercial environment.
교육	해운중개업 종사자 실무교육	6.26 (월) ~ 6.30 (금)	한국선주협회 대회의실 (한국해운중개업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박금융(석훈욱 KSF 선박금융 상무)</li> <li>- 용선개요(이광희 이양해운 회장)</li> <li>- 해운시황(백대현 전 한진해운 전무)</li> <li>- 해상위험과 보험(손점열 태크마린 부사장)</li> <li>- 선박매매중개(이광희 피데스 사장)</li> </ul>





## VIII. CONTACT INFORMATION

---

**Neal S.I. Kwon (권순일 상무)**

Senior Director

Tel. 070-7771-6410

Mob. 010-9496-0523

snp@stlkorea.com

neal@stlkorea.com (Personal)

**Danny Park (박준섭 부장)**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2

Mob. 010-5299-1126

snp@stlkorea.com

danny@stlkorea.com (Personal)

**Claire C.W. Ji (지차욱 차장)**

Deputy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1

Mob.010-6625-9785

snp@stlkorea.com

claire@stlkorea.com (Personal)

**Patima J.H. Lee (이지혜 차장)**

Deputy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7

Mob. 010-6455-1646

snp@stlkorea.com

patima@stlkorea.com (Personal)



**STL GLOBAL Co., Ltd.**

101-1401,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Tel: +82-2-776-0840 (Rep.) Fax: +82-2-776-0864 TLX: K35476

E-mail: seoul@stlkorea.com

www.stlkorea.com